

# 전국 태권꿈나무들, '민주 성지' 빛고을서 '꿈' 겨룬다

제28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 3일 개막

### 민주·인권·평화 '5월 정신' 계승...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2천300여명 참가 11체급서 8일간 금빛 명승부 펼쳐

제28회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5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광주시, 5·18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533명, 남중부 961명, 여고부 334명, 여중부 500명 등 모두 2천32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광주지역에서는 남고부 28명, 남중부 50명, 여고부 19명, 여중부 15명 등 모두 112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핀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전 종별 전자동 전자호구(KP&P) 및 전자머리보호대를 사용한다.

경기시간은 1분30초씩 3회전으로 열리며, 중간 휴식시간으로 30초가 주어진다. 3전 다승제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 체급별 1, 2, 3위에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최우수선수)에게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및 트로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 3위 팀, 그리고 감투상과 장려상 등 단체시상도 이뤄진다.

전국의 태권 꿈나무들이 광주에 모여 '민주', '인권', '평화'의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인 만큼 태권도 꿈나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2천30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내수 진작 등 광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지난해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태권도협회 제공>

인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오월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갔을 물론, 광주와 호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회 광주 출신 선수 가운데 광주 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플라이급 문상준(문성중 3), 2026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미들급 동메달을 따낸 이지언(문성중

3), 2026 2·15기 전국태권도대회 헤비급 동메달리스트 이규현(문성중 3)과 2026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 대회 2위, 종별선수권대회 2위, 여성연맹태권도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김보민(천곡중 4) 등이 금메달 기대주로 주목 받고 있다.

윤웅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이자 올해로 27회째 '광주 정신'과 태권도를 결합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8일 동안 열리는 태권도대회를 통해 광주정신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겨루기와 함께 품세의 저변이 확대되며 대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내년 대회부터는 품세 종목도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내년 통합 전남광주특별시 주최로 치러지는 첫 대회는 더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은 종목에 참가해 5·18 민주화운동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희중기자

## 김도영 선봉, '홈런 군단' 부활 신호탄

29일 기준 28개, SSG와 공동 1위 최근 10경기 13개·월정 17개 1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화끈한 홈런쇼를 선보이고 있다. 순위는 리그 5위지만 방망이는 가장 뜨겁다.

29일 기준 KBO에 따르면 KIA는 팀 홈런 28개로 SSG 랜더스와 함께 리그 공동 선두다. 생산력도 뚜렷하다. 최근 10경기 13홈런으로 리그 1위다. 한 경기 폭발이 아니다. 꾸준히 장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창원 NC전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KIA는 이날 홈런 5개를 몰아치며 9-4로 역전승했다. 올 시즌 리그 한 경기 최다 홈런이다. 경기 전까지 홈런 부문 3위였던 KIA는 단숨에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김도영이 4회 솔로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다. 5회에는 한준수와 박민이 연속 타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연장 10회에는 김도영의 3점 홈런과 김도영의 썩기포가 이어지며 승부를 갈랐다.

KIA의 장타는 낯선 장면이 아니다.

2024년 우승 당시 홈런 163개로 리그 3위, 지난해에는 144개로 2위를 기록했다. 장타는 꾸준히 이어져 온 팀의 방식이다.

올 시즌에도 대포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

홈런 부문 리그 1위 김도영이 10홈런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나성범이 4개로 뒤를 받친다. 한준수와 김도영이 3개씩, 오선우와 카스트로가 2개씩을 기록 중이다. 김선빈, 데일, 박재현, 박민까지 홈런을 보이며 타순 전반에서 한 방



리그 홈런 1위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이나온다.

상·하위 타순을 가리지 않는 장타 분포가 홈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효율도 높다.

KIA는 투런 홈런 12개로 리그 1위다. 주자를 불러들이는 장면이 많다. 솔로 홈런도 14개로 상위권이다. 여기에 3점 홈런과 만루 홈런까지 더해지며 공격의 폭발력을 키우고 있다.

상대 투수 유형별로도 우투 17개, 좌투 11개로 큰 줄임이 없다.

타구 방향도 고르게 퍼져 있다.

좌측 12개, 우측 7개, 우중간 4개, 중앙 3개, 좌중간 2개. 특정 코스에 기대지 않는다. 전 방향

에서 담장을 넘긴다.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KIA의 순장타율(ISO)은 0.146으로 리그 2위다. 리그 평균(0.126)을 웃돈다. 장타율 0.408, OPS 0.759로 전체 생산력도 상위권이다.

특히 원정에서 더 위력적이다.

KIA는 원정에서 17홈런을 기록하며 리그 1위다. 홈(11개)보다 많다. 구장과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홈런은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득점 방식이다. 지금 KIA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점수를 내는 팀이다. 남은 건 지속력이다. /주홍철기자

곡성스포츠클럽·1004스포츠클럽·땅골해남스포츠클럽 등 6곳

## 스포츠클럽 수준별 프로그램 최종 선정

전남도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체육회는 30일 "전남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스포츠클럽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6개 클럽을 최종 선정, 도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클럽은 곡성스포츠클럽(수영), 1004 스포츠클럽(태권도), 땅골해남스포츠클럽(수영, 펜싱), 목포남만배구스포츠클럽(배구), 무안스포츠클럽(배드민턴, 파크골프), 영광스포츠클럽(육상) 등 6곳으로 각 2천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받아 5월부터 유소년 대상 수준별 및

추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신규사업인 '스포츠클럽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유소년 체육활동 참여 감소와 비만 증가에 대응하고, 생활체육에서 열린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방학기간 중 해당 클럽에서 선발된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체험 캠프를 운영해 다양한 종목 체험과 전문 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사업은 유소년들이 체육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땅골해남스포츠클럽 펜싱 프로그램 운영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미래 전남 체육을 이끌어 나갈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 "야구장 전광판으로 영화 본다"

KIA, 가정의 달 맞아 5, 24일 챔피언시네마 이벤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가정의 달 맞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챔피언시네마'를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챔피언시네마는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장에서 야구 경기 그 이상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특별 이벤트로 오는 5월 어린이날과 29일 경기가 끝난 뒤 중앙데이블럭을 개방해 전광판으로 영화를 상영한다.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키즈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500명을 모집하며, 24일 경기는 올 시즌 직관 이력이 있는 팬들을 대상으로 500명을 모집해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한다. 관람객

전원에게는 하츠펙 캔디가 제공되며, 특히 5일 관람객 전원에게는 티니뮤 리우저블백도 추가로 증정한다.

상영작은 올해 1월 개봉해 큰 울림을 줬던 영화 '슈가'이다. '슈가'는 난치병인 1형 당뇨병을 앓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병마를 꺾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가족 영화이다. 특히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자 모티브가 된 정소명 군이 5일 어린이날 시구자로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라 그 의미를 더한다. 행사 일정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기자

6연패 광주FC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 "바닥 치고, 솟구쳐라"

내일 대전 상대 홈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연해 탈출이라는 절실함을 안고 대전하나시티즌과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달 28일 FC안양과의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2-5로 패하며 6연패 수렁에 빠졌다.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투혼과 경기력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전반전에 3실점으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후반전 불점유율 59%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후반 초반 문민서의 연속골로 분위기를 타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문민서는 프로 데뷔 이후 첫 멀티골과 함께 이번 시즌 마수걸이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원톱 공격수 프리드윤스도 문민서의 멀티골을 모두 도우며 6경기 만에 공격포인트를 기록함과 동시에 공중볼 장악 능력을 보여줬다.

광주는 대전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전적에서는 12승 13무 12패로 팽팽하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5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는 1승 2무로 한 번도 지지않았다. 특히 홈에서는 2019년 4월 이후 10경기 연속 무패(5승 5무)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대 대전은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혔던 강팀이다. 디오고, 주민규, 루빅손 등 공격진



광주FC 문민서가 지난달 28일 열린 FC안양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프리드윤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과 안톤, 김문환, 이창근 등 수비진까지 공수 전력이 고르게 구성돼 있다.

최근 울산 HD FC와 지난 10라운드 원정 4-1 승리로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기세를 되찾은 점 역시 위협적이다.

광주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 속에 선수단은 투혼과 집중력을 앞세워 실수를 최소화하고, 대전전 승리를 통해 반동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박희중기자